

서호인의 '소설처럼'



옛이야기의 아름다움 -백희나 '연이와 버들 도령'

아내는 어릴 때 '연이와 버들 도령' 이야기가 슬퍼서 싫었다고 말했다. 딸아이는 '연이와 버들 도령' 속 장면들이 조금 무서웠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가 잘 생각 나지 않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통 몰라서 두리번거리는데, 거실에 백희나 작가의 신작 그림책 '연이와 버들도령'이 놓여 있는 게 보였다. 아내와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은 것이다.

나는 주문한 책이 무엇인지, 그것이 배송됐는지 여쭙는지도 몰랐던 것이고. 옛이야기로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책 표지를 봐도 생각이 나지 않아 결국 책장을 펼쳤다. 아이가 곁에 왔고, 나는 첫 번째 독서를, 아이는 두 번째 독서를 이제 막 시작했다. 몇 번이나 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읽을 때마다 새롭고 즐거우니까.

백희나 작가의 진가를 많은 사람이 알아보게 된 지는 오래되었다. '구름빵'에서 시작하여 '알사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작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림'을 탄생시켰고, 일상의 면에 상상의 선이 드라마틱하게 맞붙었다 떨어지는 방식으로 '글'을 썼다. 그의 그림과 글이 비로소 백희나의 '그림책'을 만든 것이다.

근래에 케이팝이나 한류니 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나라 콘텐츠가 많지만 그중 그림책은 높은 수준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유수의 상을 받고 수출되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거기에 백희나 작가가 굳건한 중심을 잡아 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어린이책의 노

벨문학상이라 할 수 있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의 수상은 그 슬한 증명 중 하나일 것이다.

이번에는 구전되는 이야기를 옮겼다. 현재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기보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데 힘쓴 것으로 보인다. 이 이야기는 '버들 잎 도령'으로 알려져 있다. 소녀는 늙은 여인과 함께 산다. 여인은 소녀를 실컷 부러먹고 꿀방 먹인다. 한겨울에 상추를 구해 오라는 식이다.

상추를 구하려고 겨울 숲을 헤매던 소녀는 추위를 피해 동굴을 찾아 들어가고, 동굴의 막다른 길의 돌문을 열어젖힌다. 거기에는 버들 도령이 있다. 버들 도령은 소녀에게 도움을 주고 다음에는 "버들 도령! 버들 도령! 연이 나 왔다. 문 열어서" 하고 말하면 문을 열어 주겠다고 말한다. 소녀는 늙은 여인에게 버들 도령에게서 얻은 상추를 가져간다. 늙은 여인은 소녀를 수상하게 여긴다.

중간까지 읽고야 이 이야기의 앞뒤와 배대가 기억났다. 아이를 부러 먹는 계모, 계모의 악독함을 전진한 노력과 부지런함으로 견디는 아이, 그런 아이를 돕는 신비하고 친절할 조력자. 계모는 벌을 받을 것이다. 조력자는 마법과 요술을 부릴 것이다. 아이는 행복해질 것이다. 백희나의 이야기도 구전되는 이야기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르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더 슬프고, 예정된 결말인데 더욱 따뜻하다. 현실의 겨울 숲에서 환상

의 동굴 안 따스한 봄날로의 극적인 전환이 아름다움을 증폭시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픔을 쥐고 있는 듯 조용하고 아련한 소년 소녀의 표정이 슬픔을 더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혹은 지나간 시간을 버티고 내려오는 이야기 자체의 힘일지도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살려 낸 작가의 용하고 귀한 재주 덕일지도 모르고, 아마도 이 모든 게 충분한 사실일 것이다.

책에서 '늙은 여인'은 옛이야기에서는 주로 '계모'로 표현된다. 책의 뒤에 실린 참고문헌 목록을 보더라도 이야기의 원형은 계모의 악행을 다름을 알 수 있다. 작가는 본래 이야기가 가진 매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금의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만 짚어 낸다. 이 시대의 윤리적 요구를 옛이야기가 갖추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옛이야기는 달관하고 또한 시큰하다.

이야기의 끝에서 책은 버들 도령을 가여워하는, 그를 애도하는 연이와 삼점이 타 버려 빼만 남은 버들 도령을 나란히 놓는다. 남은 자의 슬픔과 떠난 자의 가여움을 하나로 놓는다. 버들 도령이 남긴 꽃으로 인해 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작품은 옛이야기의 플롯과 문법을 충실히 따르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건 이 애도의 한 장면이다.

한때 어린이였던 나는 이 이야기가 슬펐다 했다. 지금 어린 딸아이는 조금 무섭다고 했다. 몇 번째 읽은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이야기가 아름답다고 한다.

〈시인〉

社說

지역 숙원 사업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하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그랜드 '공약 경쟁'이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 지역의 숙원사업인 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조성 사업과 미래형 친환경 공기 사업은 온데간데없고, 국비 예산 지원 없는 복합쇼핑몰 관련 소모적인 논쟁만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광주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 측에 광주 미래 발전을 책임질 8대 분야 20개 중점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5일 기준으로 민주당은 전체 20개 사업 중 75%인 15개 사업을 반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작 40%에 불과한 8개 사업을 공약에 반영했다고 한다.

광주시가 제안한 대선 공약 중 상당이 미반영한 공약은 광주와 인근 도시 5곳을 묶는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및 지능형 공기 신산업 특화단지 조성, 국가급 치문화산업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이다.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지역 현안이 공약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수천억 원, 수조 원의 국비 예산이 투입되는 경제·생활 인프라 구축 공약은 뒷전인 채 특정 기업이 투자해야 하는 복합쇼핑몰 유치 논란만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게 대표적인 예다.

특히 지역의 숙원 사업은 대선 공약에 포함되더라도 집권 정당의 성향 등에 따라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 지역 대선 공약 이행률은 80%대를 기록 중인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주 지역 대선 공약사업은 14.5%였다.

이제 양당은 당장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광주의 100년을 이룰 공약 경쟁을 펼쳐야 한다. 광주시 역시 미반영 사업들을 반드시 대선 공약에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야 할 것이다.

공사비 '눈덩이' 도시철도 부실 설계 아닌가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출퇴근 시간대 차량 배차 간격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부실한 기본설계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려면 전동차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등 수백억 원의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시험·시운전 시뮬레이션 운영 용역을 진행하던 중 광주시청-광주역 간 표정(表定)속도가 시속 25.88k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기본설계 당시 예측했던 33.46km보다 23% 감소한 것이다. 표정속도란 출발역부터 도착역까지 주행 거리를 정차 시간을 포함한 실제 소요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여기에 1단계 구간의 정거장 간 길이가 짧고 곡선 구간이 많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애초 4분 간격으로 구상했던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은 5분 30초로 늦어지게 됐다. 이 경우 시간당 운행 대수 역시 15대에서

10.9대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 등에 대비한 차량 예비율(운행 차량 대비 예비 차량 비율)도 국토교통부가 권고하는 기준인 10%에 못 미치게 된다.

결국 애초 기본설계대로 배차 간격을 4분으로 맞춰 차량 예비율을 지키려면 당초(66량)보다 28량의 전동차를 추가 투입해야 한다. 차량 가지 추가 확보까지 감안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48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거장이나 운행 구간 등 기본 조건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데도 배차 간격이 늘어난 것은 애초 기본설계가 부실했음을 말해 준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는 사업의 장기 지연으로 인한 불가·임금 상승과 예상치 못한 설계 변경 등으로 9300억 원이나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기본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리 된 것인지 참 한심한 일이다. 광주시는 이로 인한 공사 차질이 없도록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기고

탄소 중립·디지털 전환, 산관학 협력 고도화부터



최일 동신대학교 총장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고, 지난해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지구 종말 시계는 자정 1분 전이며,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기후 위기의 강력한 대안은 탄소 중립이다.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지구 온도가 1.5°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목표를 정했고,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애플·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겠다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선언했다.

탄소 중립은 에너지 전환을 넘어 현재의 산업·경제·문화 등 사회 시스템 전체에 걸쳐 문명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인류 문명의 흥망성쇠는 이제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시키며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표준화에 착수하고 국가 혁신 차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 실행 계획을 수립해 데이터법 구축을 비롯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메타버스를 비롯한 초연결 신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앞당겨진 측면이 있다. 비대면 수업과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민관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비대면 방식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디지털의 막강한 힘을 보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은 혁신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었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도 나서고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디지털 역량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이제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 혁신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초월하기 때문에 산업 지형과 일자리 등 경제 사회 구조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지역 기업에 이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열린 셈이다.

그러나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짧은 시간 내에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 기업과 정부, 대학의 산관학 협력 체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 같은 대전환의 시대에는 대학이 혁신의 전초기지 가 되어야 한다.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산관학 협력의 고도화를 이뤄내는 한편 디지털 리더십 역량을 갖춘 인재 배출해야 한다. 산관학 협력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야 탄소 중립·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다. 이제 발 빠르게 실천할 때다.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는 신념을 견지해 온 지방대학 총장으로서 '지방 소멸' 이후 위기'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인류가 2년 넘게 관통하고 있는 코로나19 터널이 끝나면 우리는 곧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라는 더 어둡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마주하게 된다. 수도권 중심·탄소 중심 사회에 전면적인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지방은 예상보다 빠르게 소멸하고 지구 환경은 예상보다 빠르게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류가 유사 이래 위기 속에 기회를 만들어 발전해 왔듯이, 기후 위기는 지방의 위기까지 타개해 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말이다.

세계적인 석학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인류 문명의 불균형이 총·군·쇠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우주 여행이 가능해진 시대에도 코로나19를 극복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고, 문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 많은 총과 쇠를 만들어내느라 배출된 탄소들이 쌓여 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니 총·군·쇠의 위력은 역사적으로 유효하다 하겠다.

의료칼럼

회전근개 파열



노연태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변화가 가장 흔한 원인인데 그 외에도 퇴행성 변화, 외상, 염증성 질환, 선전적 이상과 혈액 순환 장애도 발병 요인이 되고 있다. 회전근개 파열은 이처럼 다양한 원인과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오면서 곧 다시 좋아지기를 반복하다가 점차 목과 팔까지 통증이 퍼진다. 특히 팔을 위쪽이나 몸 뒤쪽으로 뻗을 때 통증이 심하다. 이때문에 중년층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견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질환의 원인부터 증상까지 차이가 있다.

오십견은 특별한 원인 없이 두꺼워진 관절낭이 힘줄과 인대와 유착이 되면서 생기는 어깨 통증으로, 팔을 올리거나 돌릴 때 어깨와 위팔 전체에 통증이 느껴진다.

반면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퇴행성 변화로 나타나며 무리한 운동과 외부 충격으로 힘줄이 약해지거나 끊어지면서 나타난다. 가장 흔한 증상은 어깨 통증으로 주로 팔의 위쪽 삼각근 부분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고 밤에 잘 때 통증으로 깨는 야간통을 많이 호소한다. 목 디스크 환자는 승모근 통증이나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치료는 파열 정도에 따라 부분 파열, 완전 파열로 구분해 시행한다. 부분 파열 환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데 통증이 조절되지 않으면 주사 치료를 병행한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6개월간 시행해도 통증이 지

속되거나 영상 검사에서 파열 진행 사항이 발견되면 수술적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완전 파열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우선 고려되지만 모든 경우에서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고 환자의 나이, 기능 제한·필요한 기능·통증의 정도, 기간 등에 따라서 수술적 치료를 신중히 선택하여 진행한다. 수술적 치료법은 관절경하 봉합 수술, 절개하 봉합 수술, 인공 관절 치환술 등이 있다. 수술은 대부분 관절 내시경으로 진행하며 피부에 작은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넣고 회전근개 파열된 범위를 보고 손상된 회전근개를 봉합하게 된다. 파열 크기가 커서 관절경 수술로 봉합이 힘들면 추가 절개로 봉합술을 시행한다. 완전 파열 정도가 크고 장기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으면 봉합이 힘든 상황인데 이처럼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 역행성 인공 관절 치환술로 어깨 관절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바로 어깨를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 수술 후 4~6주 고정 치료를 진행하고 이후 1~2개월 가량 재활 치료로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게 된다. 파열의 크기가 클수록 수술적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중 파열 초기가 아닌 광범위한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어서 해당 질병의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3~4주 이상 어깨 통증이 지속된다면 방치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근육과 인대가 쉽게 경직되어 어깨 통증 등 관절 질환 통증이 증가한다.

어깨 관절을 감싸는 근육과 힘줄을 뜻하는 회전근개는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등 이렇게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근육은 어깨 관절을 움직이게 하고 안정성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회전근개 파열은 이 근육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이 파열되어 어깨에 통증 혹은 기능 이상을 발생시키는 질환을 말한다. 어깨 힘줄은 근육 횡단면이 작고 혈액 분포 역시 비교적 적으며, 바로 위쪽으로 '견봉'이라는 뼈와 마찰이 일어나 피로 누적과 퇴행성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

회전근개 파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9월 어깨 수술을 받으면서 원인 질환으로 알려진 질병으로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 질환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퇴행성

無等鼓

'기록'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책이 있다. 오래전 읽은 '신인왕제색도: 빛으로 그리는'이다. 인왕산 자락에 자리한 '공리출판사' 이갑수 대표가 글을 쓰고 도진호 작가가 사진을 찍었다.

이 책에는 2009년 가을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같은 자리'에서 찍은 인왕산의 모습과 사색이 담긴 글이 실려 있다. 사진을 찍은 장소는 1751년 겸재 정선이 '인왕제색도'를 그렸던, 겸재의 집터 인곡정사가 있던 곳이다. 늘 같은 자리에서 찍은 인왕산은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책은 2009년 가을부터 이듬해 가을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같은 자리'에서 찍은 인왕산의 모습과 사색이 담긴 글이 실려 있다. 사진을 찍은 장소는 1751년 겸재 정선이 '인왕제색도'를 그렸던, 겸재의 집터 인곡정사가 있던 곳이다. 늘 같은 자리에서 찍은 인왕산은 매번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바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보여 주는가 하면, 한 후 구름에 싸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헤어짐과 배웅'(Leaving and Waving) 전시회를 열었던 미국 사진작가 디에나 다이크만의 작품도 인상적이다. 작가는 부모님 집에 갔다가 떠나올 때마다 배웅해주는 부모님을 1991년부터 앵글에 담기 시작했다.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포즈로 손을 흔드는 부모님을 27년간 기록한 것이다. 점점 변해 가는 부모님의 모습이 그의 사진에 오롯이 담겼는데, 얼굴의 주름은

깊어지고 몸은 점점 쇠약해진다. 어느 순간부터 사진 속엔 어머니 혼자만 등장한다. 마지막 사진은 '손 흔드는 이 없는' 텅 빈 차고(車庫) 모습이었다.

'비포 선 셋'의 리처드 링클레어 작품 '보이후드'(Booyhood)는 여섯 살부터 열 여덟 살까지 주인공 메이슨의 삶을 따라가며 소년의 성장기를 보여 준다. 감독은 여섯 살 소년을 캐스팅했고, 배우들은 12년간 매년 일주일 정도 만나 촬영했다.

오는 3월6일까지 광주양림미술관에서 열리는 김옥열 사진전 '흔한 날들의 특별한 기록, 10년의 아침'은 '순위'의 매력을 한껏 보여 준다.

'기록'의 의미를 잘 보여 준다. 10여 년 전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간 작가는 베란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무등산과 아침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계속된 그의 앵글 속엔 화려한 색채로 수놓은 하늘, 수줍게 얼굴을 내민 새벽달, 변화무쌍한 구름의 모습 등이 담겼다. 평범한 일상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나만의 무엇'을 하나씩 기록해 나가도 좋을 듯하다. /김미은 문화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